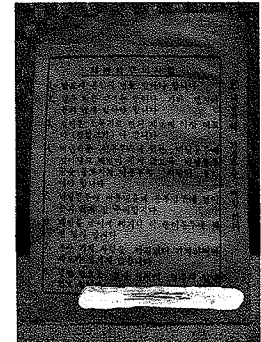




정호가 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장 일을 못한 지 벌써 넉 달. 정호의 아내는 지난달부터 시내에 있는 큰 음식점으로 일을 다니며 정호 대신 힘겹게 가게를 꾸려나갔다. 어린 자식들과 함께 한 초라한 밥상에서 정호는 죄스러운 한숨만 내뿜으며 아이들만 집에 남겨 두고 정호는 오후에 다시 집을 나섰다. 혹시라도 주인집 여자를 만날까 봐 발소리조차 그의 것이 아니었다. 벌써 여러 달째 밀려 있는 집세를 생각하면 그는 어느 새 고개 숙인 난쟁이가 되어 버렸다. 저녁 즈음에

고달픈 삶에 취해 집 앞 골목을 들어서니 귀여운 딸아이가 달려와 안겼다.
 "아빠, 엄마가 오늘 고기를 사왔어. 아빠 오면 해먹는다고 아까부터 아빠 기다렸어"
 "사장님이 애들 갖다주라고 이렇게 고기를 싸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영준이가 며칠 전 부터 고기 반찬 해달라고 했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집세도 못 내면서 고기 냄새 풍기면 주인 볼 낫이 없잖아."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지금이야 저녁 준비한 거예요. 열한시 넘었으니까 다들 주무시겠죠, 뭐."
 불고기 앞에서 아이들의 입은 꽃잎이 됐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내는 행복해했다.
 "천천히들 먹어. 잘 자리에 체할까 겁난다."
 "엄마, 내일 또 불고기 해줘, 알았지?"
 "내일은 안되고 엄마가 다음에 또 해줄게. 영준이 고기 먹고 싶었구나?"
 아내는 어린 아들을 달래며 정호 쪽으로 고기 몇 점을 옮겨 놓았다
 "당신도 어서 드세요."
 "나는 아까 친구 만나서 저녁 먹었어. 당신이 배고프겠다. 어서 먹어."
 정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고기 몇 점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 달빛이 내려앉은 수돗가에 쪼그려 앉아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가엾은 아내..... 아내가 가져온 고기는 음식점 주인이 준 게 아니었다. 솟기 없는 아내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쟁반의 고기를 비닐 봉지에 서둘러 담았던 것이다. 아내가 구워준 고기 속에는 누군가 씹던 껌이 노란 종이에 싸인 채 섞여 있었다. 아내가 볼까 봐, 정호는 얼른 그것을 집어 삼켜 버렸다. 아픈 마음을 꼭꼭 감추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착한 아내의 마음이 찢어질까봐...
 정호는 늦은 밤, 아내의 구두를 닦는다. 별빛보다 총총히 아내의 낡은 구두를 닦으며 내일의 발걸음은 지금보다 가볍고 빛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댄 그랬지▶ 그때 “채변 봉투” 에 이런 문구가
 1. 반드시 본인의 변을 받아야 합니다
 2. 채변은 소독제로 세군데 이상 떠모아(밥알 크기)야 합니다
 3. 비닐봉투에 변을 넣을 때 봉투입구에 변이 묻지 않게 잘 주의 합니다
 4. 떠낸 변을 이 봉투속에 있는 비닐봉투에 깊이 넣고 대변이 새지 않도록 비닐봉투 끝을 불로지져 이 봉투에.....
 5. 대변을 이 종이 봉투에 직접 넣지 않습니다
 깜박 잊고 안가져오자 자기것을 조금 나눠(?)주던 친구...
 기르던 강아지 똥을 넣어와 총이란 총은 모두 다 나와 참피해하던 친구.. 모두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비보 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14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4월 4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본성이냐? 사랑이냐?

서도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 수고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없는 일에도 수고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높은 지위와 '부유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받고 즐거워하는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고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율법의 불꽃과 화염 속에서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속의 지고한 사랑 앞에서 순복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본성은 육체로부터 시작되어 나로 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로 부터 나옵니다.

◀남편 기 살리는 말▶
 “이 세상에 당신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기 죽이는 말▶
 “취미가 밥먹여 줘요?”

◀아내 기 살리는 말▶
 “어? 당신 보조개도 들어가?”
 ◀기 죽이는 말▶
 “왜 이렇게 촌스러워”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4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60 (고난주간)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14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박일영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4:27, 15:11, 16:33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 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고난을 껴안는 삶	전병주 목사
찬송 Hymn	211장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4월의 예배위원 ◆

일자	기도	헌금위원	설것이
4	박일영	김경일	8구역
11	이광희	박하림	청년부
18	이규임	박해련	9구역
25	이재영	백제성	10구역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 교우소식 <이사> 최득수, 오지영 집사 ☎ 418-5533 ☐ 10 Portsea Pl. Chatswood
(등록) *오용석, 서정숙 집사(4선교회, 11구역) 헤린
☎ 478-4587 ☐ 9A Korotaha Tce. Rothesay Bay
*정대문, 유성인 성도(4선교회, 6구역) 수현, 성훈
☎ 522-1452 ☐ 18Maui Gr. Remuera
- “부활절 봉헌 영여성경 쓰기” : 안내석에 준비된 함에 넣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과 의미가 담긴 더 없는 부활봉헌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은 “종려주일” : 이번주간은 고난주간(Passion Week)입니다. ‘절제’를 먼저 생각해 하는 주간입니다.
- 모임: 10선교회, Tea Time을 하면서 정기회의.
- 선교회: 다음주일 “부활절식사교제”를 남여연합선교회별로 BBQ 준비하여 갖겠습니다.
<준비물> 선교회별 BBQ 불판, Salad와 음료. <회장 BBQ>
- “성 금요 연합예배”(갈보리, 로드니, 샘이깊은교회, 섬김의교회, 영락, 오성, 은누리, 은혜와진리교회, 임마누엘, 주님의교회, 주안장로, 정원)
<일시> 9일(금)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32 Edgewater Dr. Pakuranga
*각기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그 죽으심 아래서 “One in Christ”
- 2004 “자녀를 위한 2주 특별새벽기도회(2주차)” 3월 29일-4월 9일(금) 6:00am
*잠이 든 자녀 이부자리를 덮어주고 나오는 새벽, 일생을 은혜로 덮어달라 부탁 드리는 새벽의 기도... 예배당 문은 5:10am에 열어 놓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은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새벽제단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당회. 오늘 Tea Time 후 유아실.
- “금요정기구역예배” : 이번달 정기구역예배는 다음 주간(16일)에 드리겠습니다

◀착한 시인들▶ 다 바치고 -작자미상-

다 바치고
십자가 나무결로 서 있는 당신에게서
거룩함을 배웁니다.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로 서 있는 당신에게서
평화를 배웁니다.

다 태우고
무게 없는 재로 서 있는 당신에게서
희망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 진다고 하지만
고난 없이 성숙해 지고 싶습니다. 고
난 없이 영광 없다고 외치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고싶은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도 어렵지
만 건강치 못한 교회가 될 때 겪는
성도들의 아픔도 얼마나 클지 생각
해 봅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 겪는
고난만으로도 감당키 버거운데 교회
로 인해 고통을 당케 되면 교우들은
어디서 그 짐을 부리고 씬을 얻을지
요. 그러기에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
야함을 고난주간에 생각해봅니다